

# 임실치즈, 광화문도 인정했다

### ‘지자체 축제· 특산물 장터’ 참여... 소비자 큰 호응 얻어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임실N치즈가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도 높은 브랜드 파워를 실감했다.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이사장 심민)는 지난 4일 서울시가 주최한 ‘지자체 축제· 특산물 장터’에 참가했다. 광화문 삼거리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린 장터에서 사업단은 치즈 체험과 판매를 비롯한 ‘제3회 임실N치즈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주말을 맞아 광화문 일대를 찾은 각양각색의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치즈 늘리기, 찢어먹는 치즈 만들기 등의 이색적인 체험은 큰 인기를 얻었다.

50여년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청정자연이 만든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치즈를 비롯한 요거트 등 제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 21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던 치즈축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는 10월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임실N치즈축제’ 홍보도 병행했다.

사업단은 지난달 서울시 종랑구 일대에서 열린 ‘서울장미축제’를 찾아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임실N치즈가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도 높은 브랜드 파워를 실감했다.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공세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콘텐츠와 자체인력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수도권 시민이 많이 찾는 행사장은 소비자 동향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 마음을 사로 잡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는 ‘임실치즈축제’는 천안송이 국화꽃이 만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오는 10월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농촌일손돕기로 애타는 농심에 ‘단비’

### 순창군, 8일부터 ~ 30일까지 고령농업인·재해 피해 농가 등 일손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대적 일손돕기에 나서 농촌인력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군은 오는 8일 환경수도과와 인계면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오디수확을 돕는 일정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군산하 전직원과 유관기관 직원 등 700여명이 참여하는 2017년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종합행정 담당별 실과와 읍면이 지원 날짜와 대상농가를 선정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특고노인과 장애인 농가, 고령농업인, 우박피해 등 자연 재해를 입어 일손이 급히 필요한 농가나 과수 특작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일손돕기 추진 농작업으로는 본격적 수확 시기가 도래한 매실, 복분자, 블루베리 등 특화작목 수확과 비닐멀칭, 고추 지주목 설치 등 밭 농작업이다.



농번기를 맞아 직원과 유관기관이 대대적 일손돕기에 나서 농촌인력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또 비닐하우스철거 및 농경지주변 영농폐기물수거도 같이 실시해 클린순창 운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친환경농업과와 읍면사무소에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해 실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손돕기 인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창구에 접수된 사항은 군청 일손돕기 외에 시민 종교단체, 군부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운 농민들을 돕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와도 연계해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농작업시 농가의 부담이 없도록 작업도구, 종식 등은 자체 준비하고 농작업 시기도 농가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선열들의 거룩한 뜻 가슴 깊이

### 남원시, 62회 현충일 추념행사 열려

남원시는 제62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6일 오전 10시 산내면 지리산충혼탑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이석보 시의회 의장 관내 유가족,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경찰, 군인 시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행사를 가졌다.

추념행사는 육군 제773부대 제3대대 장병들의 조총발사, 현화·분향 남원시장의 추념사 시의회의장의 추도사, 서남대학교 학생들의 추모연시 낭송, 시립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지리산충혼탑은 6.25전후 지리산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 경찰, 민간인 등의 7,285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보훈단체, 학생이 수시로 찾아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에 대한 명복을 기리는 등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서 장애인시설 방문성폭력 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여성청소년계는 6월 1일부터 관내 고위험 재가장애인 집 및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계는 在家 지적장애여성에 대상으로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등 활동과 장애인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학대여부, 실종이동 등 발걸을 위한 장기 무연고자 대상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확인, 신원 확인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여자 장애인 대상으로 여경과의 1:1면담을 통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거주지 내 범죄유역 요소등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전달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국), 순창읍민회(회장 서한복), 순창행정부지센터(읍장 설계환)는 최근 진행된 순창읍 실버드림 잔치 중 촬영한 장수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어르신들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장수사진은 순창사진동우회(회장 한창희) 회원의 봉사로 132명의 어르신들을 촬영했고 액자로 제작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해 드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큰 도움을 줬다.

설계환 읍장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 민관협력을 통해 더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개발해 제공드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서 아동지킴이 운영자감사수여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 5일 청소년범죄예방활동과 선도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위급 시 아동의 임시보호 및 경찰에 신고하는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으로 이날 감사장 수여는 지킴이집 운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로 임실군 30여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중 4개소를 선정해 감사장과 격려 품을 전달하고, 지킴이 표지물 청결유지, 아동 안전 대응요령과 행동수칙 교육,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호 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의 공동체 치안협력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격려하므로 자긍심을 높여준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대산면, 지역발전 염원 담은 소나무 식수

대산면에서는 최근 소재지 삼거리 화단에서 아름다운 대산면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를 식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오진관 면장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단체장 30여명이 지역발전과 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날 식수된 소나무는 면천복씨 종중에서 대산면 발전을 위해 헌수한 것으로 대산면 임구 국도변 화단과 소재지 화단에 안치했으며, 이로써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콘산초목 대산면 이미지에 걸맞는 굵은 기상과 깨끗한 절개를 구현하는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양호 발전협의회장은 소나무에 담긴 기개와 정신처럼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산면이 되기를 바라며, 흔쾌히 헌수를 결정해주시는 면천복씨 종중과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대산면사무소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고추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임실군은 농업인의 고품질 고추 품종 선택 요구에 부응기 위해 50여 고추품종의 비교 전시포를 설치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계획을 수립해 신령면 소재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7개 회사의 추천 종자를 재배하고 있다.

2300㎡ 면적의 전시포는 올해 10월까지 품종별 생육 상황, 병해충 발생률, 수량성, 신미도 등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우수 품종 선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추농사는 품종 선택이 소득으로 직결되는 만큼 비교 전시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전국적인 명품 고추 생산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선택 요령과 고품질 생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지도를 비롯한 재배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순창이 참 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 063-653-5002  
H.P :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